



정교회주보

제2471호

2024.05.05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부활 주일

(4일(토) 밤 8시)

부활절 의식 의식서 7~3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부활절 의식서 37~46 참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사도경 : 사도행전 1,1~8 248
- 복음경 : 요한 1,1~17 96

부활 계란 축복 기도 의식서 46

사랑의 대만과

(5월 5일(주일) 오전 11시)

부활절 의식서 47~69

거룩하고 위대한 빠스카

부활 대축일을 우리는 '빠스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은 '통과, 건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을 나오게 하신 날,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날 또한 하늘에서 내려 오셔서 동정녀의 태에 잉태되신 날, 마침내 온 인류를 그 본래의 썩지 않을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인류를 지옥의 입에서 빼내어 하늘로 향해 오르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내려가시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다만 그분을 믿기로 선택한 이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태초 이래로 성화된 이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능으로 붙잡으시어 지옥에서 해방하시고 하늘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화려하게 초월적 기쁨으로 경축하는 것이며, 우리 본성은 하느님의 자비로 인해 그 기쁨으로 풍요해져서 우리 자신이 이 기쁨의 형상이 됩니다.

'부활 대축일 조과 시나사리온' 중에서

세계 총대주교 2024년 부활절 메시지

새 로마-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자 세계 총대주교인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스는
영광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 자비가
온 교회에 임하길 기원합니다.

지극히 존경하는 형제 주교들과 축복받은
자녀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대 사순절의 경주
를 마친 뒤,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 주
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승의 속박으
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주님의 영광스려
운 부활을 기쁨으로 경축합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광스
럽게 부활하신 것은, 죽을 운명에 처한 모든 인
류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며, 모든 일들의 완성
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또한 하늘나라에서 하
느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미리 맛보
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언할 수 없는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며, 교회
의 성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며, “우리에게 천국
의 문을 열어 준” 빠스카를 경험합니다. 그리
고 이를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으로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정수로서, 우리 가
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우
신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받아들입니다. 빠스
카 때, 정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향해 가는 모든 일들의 움직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베드로 전 1,8), “빛의 자
녀로서, 대낮의 자녀로서”(테살로니키 전 5,5)
통합됩니다.

정교회 생활의 중심적인 특징은 부활의 환희
적 리듬입니다. 한 철학자는 정교회 영성이 “침
울”하고 “음침”하다고 잘못 묘사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서구인들은 빠스카 경험의 의미와
깊이에 대한 정교회의 정교한 통찰력을 옳게 평
가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부활에 이르는 길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
습니다. 정교회 영성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
는 유토피아적 생각이나 ‘부활 없는 십자가’라
는 비관주의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교회의 경험에서 악은 역사의 마지막을 차지
하지 않는 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세상에 있
는 악의 존재와 악으로 인한 결과에 맞서 싸우
는 동기가 되어 강력한 변모의 힘으로 작용합니
다. 정교회의 자기 인식에는, 악에 굴복하거나
인간사 발전에 무관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
려 역사의 변화에 대한 교회의 기여는 신학적
기초와 경험론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교회를
세속과 동일시하는 위험 없이 전개됩니다. 정교
회 신자는 세속적 현실과 종말론적 완성 사이의

대립을 인식하며,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결코 무의미한 것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교회를 세상에 무관심한 채 고립되지 않도록 지켜주었고, 또 세속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정교회 신자들에게, 우리 신앙의 모든 신비와 경험론적 풍요는 빠스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향료 가진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마르코 16,5 참조) “놀랐다”는 것은, 존재론적 경이로움의 경험으로서 우리의 신앙 경험의 광대함과 본질을 특징짓습니다.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 우리가 접근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신비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에서 지식으로의 여정이 아니라, 지식에서 신비로”의 여정입니다.

신비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경험론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신비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자유의 가장 깊고 확고한 표현입

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최고의 신성한 선물, 즉 은총에 의한 신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유의 시작일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교회'로서 정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길, 목적이 되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유를 전하는 기쁜 소식이고, 자유의 선물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서 “자유를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존경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득 안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으로부터 빛을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선택받은 거룩한 날”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죽음으로 죽음을 떨하신” 평화의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시기를, 또 모든 선한 일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밝혀주시기를, 가장 큰 기쁨에 넘치는 인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며 기도합니다.

2024년 거룩한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렬히 간청하는

+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1일(수)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의 축일이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 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알림

■ 신간 소개



기도에 대하여 | 성 요한 크리스토모스 지음 | 그레고리오스 박노양 옮김 | 정교회출판사 | 160쪽 | 12,000원



■ 용미리 성당 예배 안내

토마 주일인 다음 주일(5월 12일), 용미리 구세주 부활 성당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성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이번 주간은 금식이 해제됩니다

부활절부터 40일간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부활 찬양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이번 주간은 금식이 해제됩니다.

■ 서울 성당, 인천 성당 세례 성사

지난 4월 27일 라자로의 부활 토요일에 예비신자 12명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항상 함께하셔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서울 성당 : 니카이 알렉산드르, 니카이 아리아나, 윤 마드배어, 조 디미트리, 리 마리나, 리 울리아, 첸 이리나, 마리아, 엘레니 정성화, 아나스타시아 고희서
인천 성당 : 마가리타 최, 알렉산드라 조운진

성인의 가르침

끊임없는 영적 투쟁

언젠가 제자들이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영적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매우 연로한 사부에게 그의 쇠약해진 육체에 약간의 휴식을 주는데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다.

사부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형제들이여,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 성조도 인간의 머리로는 해득하기 어려운 하느님의 은총을 보면서 왜 지상에 있을 때 더 열심히 투쟁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할 것 같소.”